

개신교, 우리의 형제

박태식 신학박사, 서강대학교

그리스도의 정신만 공유한다면 개신교와 가톨릭은 언제나 한 형제이다.
분열의 시대를 넘어 일치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까? 사실 그런 식의 질문은 옳지 않다. 하느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충격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눌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조금 부드러운 어조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 무엇일까’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필자의 경우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일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당시에 심어진 씨앗은 불행을 잉태하여 끔찍한 30년 전쟁으로 유럽에서만 약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후로 300~400년 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을 일으켰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던 미움의 감정도 어느덧 시들해진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특히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드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힘을 합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당면 과제로 부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시아 끝자락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을 비난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믿는 종교이다.’, ‘칠성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나?’, ‘성경에는 무식하고 그저 미사만 참석하면 만사형통인 줄 안다.’, ‘성당에 가보면 온통 우상이 들어차 있다네.’ 성서지식이 풍부하고 공격적인 선교를 일삼는 개신교 전도사를 만나면 대부분의 가톨릭 교우들은 대답 한 마디 제대로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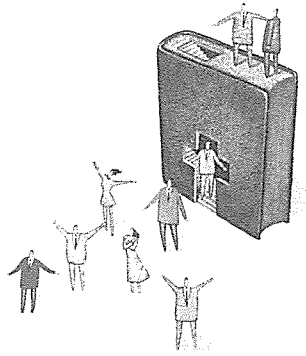
하는 게 현실이다.

선교 200년을 넘어선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그간 발전을 거듭해왔다. 개신교인이 약 1,000만, 가톨릭이 약 400만 정도라고 하니, 짧은 선교기간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셈이다. 물론 통계의 정확성에 어느 정도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쯤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래야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종교개혁 역사

멀쩡하게 하나였던 교회가 갈라질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11세기에 동·서방 교회로 나뉘었을 때는 ‘성화상 논쟁’이 있었고 16세기에 개신교가 등장했을 때는 ‘전통과 믿음’이 핵심 문제였다.

먼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했을 때의 유럽 상황을 점검해보자. 당시에는 교권의 무리한 확장이 황제들과 영주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시기였다. 중세의 교황은 이탈리아 중부지역에 광대한 로마교황령을 소유함으로써, 세속 군주 역할도 수행했다. 15세기 후반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르 6세(1492~1503)는 권모술수와 난잡한 사생활로 악명을 떨쳤다. 그는 아들(사생아) 체자레 보르자를 앞세워 영토를 확장했는데, 체자레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델



이 된 인물이다(혹시 관심 있는 분은 최근에 번역된 마리오 푸조의 <패밀리>라는 소설을 보기 바란다).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권의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교황권의 부패는 성직 매매와 면죄부로 이어졌고 레오10세(1513~1521)는 성 베드로 성당 개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교권에 시달리던 영주들은 물론, 고향을 짜내야 하는 서민들의 불만도 커져만 갔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힘을 가진 영주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소신을 떠나갔고, 이는 결국 개혁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영주들의 세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유럽 전역을 힘의 각축장으로 몰아넣기에 이른다(30년 전쟁).

3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이 맺어진 독일의 문스터 시에는 아직도 당시의 참혹했던 기억을 되살려주는 기념물들이 남아있다. 산채로 살점을 떼어내는 고문도구들, 작은 철장에 사람을 가두어 까마귀가 뜯어먹게 만든 람베르트 교회의 침탑 등은 종교의 힘이 잘못 사용될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념물들이다.

다음으로 인문주의(르네상스)를 종교개혁이 등장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인문주의의 핵심에는 글자 그대로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세계와 신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들어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의 눈에는, 교회가 개개 인간의 신앙을 통제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었다. 개혁자들의 논리는 비교적 간단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교회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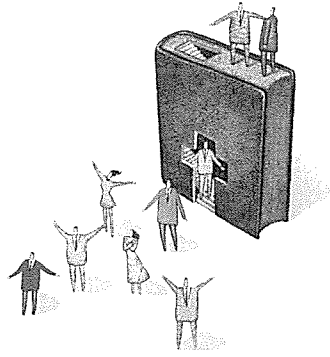
있고, 모든 신앙 행위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에 대해 개혁자들은 교회의 중간자적인 역할 없이 하느님과 인간이 직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나갔고 이를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짧은 표어로 개념화시켰다.

1,500년 동안 전통을 굳건히 지켜온 가톨릭교회는 당연히 개혁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1555년)에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루터파를 공인하기에 이른다. 개신교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역사가들은 '인간'을 재발견했다는 차원에서 종교개혁자들을 '인문주의자(휴머니스트)'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오늘의 상황

앞에서 보았듯이 16세기에 교권과 속권이 심각하게 대립했고 때맞추어 시대 전 분야에서 인문주의가 대두되면서 개신교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면서 교황의 정치적인 힘은 급속하게 시들어 갔다. 그리고 이성과 계몽을 앞세운 프랑스 대혁명도 가톨릭 쇠락에 일조했다. 1870년 통일 이탈리아가 로마를 점령하면서 교황도 더 이상 세속적인 정치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교황은 세계 가톨릭의 영적인 지도자로 탈바꿈하기에 이른다.

교권과 속권이 부딪쳤고 인문주의가 부각되었던 시대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당시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을 때는 비단 신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배경도 상당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에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가



양쪽을 갈라놓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들 중 눈에 띄는 것은 교계 제도이다. 로마가톨릭은 로마의 주교이자 세계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교황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식 성직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다양한 교파와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각 교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개교회주의'라는 원칙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세계 3억 개신교인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개신교 내에 통일된 체계는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예배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양쪽의 입장이 확연히 구분된다. 가톨릭은 체질적으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실 세계 11억 가톨릭 인구를 하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려면 유구한 2,000년 전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는 하다. 그 전통의 중심에 칠성사가 서 있고, 그 중에서도 매주 미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성찬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중심을 둔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통해 초대교회의 정신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말씀(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성사중심적인 가톨릭 예배와 구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희망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지 벌써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당시만 해도 여러 면에서 양쪽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공통점을 거의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전례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 성공회나 독일의 루터교는 예외지만 대부분의 개신교에는 가톨릭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뜻이다. 그저 주의 기도문과 사도신경 정도가 한 때 같은 식구였다는 증거로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신학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강력하게 분할시켰던 '의화 가르침' 논쟁에서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개신교)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가톨릭)는 식으로 알려진 입장 차이가 해소된 것이다. 앞으로 신·구교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오로지 은총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수락되어, 우리를 선행으로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받게 된다. 곧, 죄인들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새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될 뿐,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공로로 취할 수 없는,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자비의 덕임을 말해준다(루터교 세계 연맹과 가톨릭교회의 의화교리에 관한 합동 선언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3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19-220.).

그리스도의 정신만 공유한다면 개신교와 가톨릭은 언제나 한 형제이다. 분열의 시대를 넘어 일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